

2015.12.08

국제관세동향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국제관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슈내용을 정리하여 12월 「국제관세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TO

- < 10월 ~ 11월 동향 >

- > I. 관세평가위원회(CCV) 정례회의 개최 (10.7, 제네바)

- 관세평가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 각 국의 관세평가 법령, 우루과이가 제안한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 4.1」 개정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

- > II. 국제수지제한위원회(CBPR) 회의 개최 (10.16., 제네바)

- 국제수지제한위원회 개선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수입제한조치(추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동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도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 간 입장차가 지속, 내년 2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에콰도르의 거시 경제 상황 및 에콰도르가 제안한 추가 관세 조치 종료 계획(Phase out)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2015.12.08

> **Ⅲ. 규범협상그룹 산하 기술그룹(Technical Group) 회의 개최 (10.29.~30, 제네바)**

□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정보 관리에 관한 조사당국의 제도, 관행 및 경험을 공유, 미국은 「19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351」에 따른 비밀정보 유형을 소개하고 비밀정보를 관리하는 「APO(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고, 캐나다, EU, 러시아 등도 국내법에 따른 비밀정보 유형과 비밀로 제공하는 「정당한 사유(good cause), 제3자가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 관리」 등에 대한 자국의 제도 및 관행을 소개.

> **Ⅳ. 제7차 태국 무역정책검토회의(TPR) 개최 (11.24/26, 제네바)**

□ 태국에 대한 제7차 무역정책 검토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태국이 자연재해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비준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자 및 지역경제 통합을 위하여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

2015.12.08

> **V. 카자흐스탄(Republic of Kazakhstan) 162번째 회원국 자격 획득(11.30.)**

□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안이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채택됨에 따라 WTO 가입의정서를 10.31.(토)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이에 따라 11.30.(월)자로 162번째 정식 회원국 자격을 취득.

< 12월 전망 >

> **I. 제2차 아이티(Republic of Haiti) 무역정책검토회의 (TPR) 개최 (12.2/4, 제네바)**

□ 오는 12.2.(수) 및 12.4.(금)에 아이티(Republic of Haiti)에 대한 제2차 무역정책 검토회의(Trade Policy Review)가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 **II. 제10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개최 (12.15~12.18, 케냐 나이로비)**

□ 오는 12.15.(화)부터 12.18.(금)까지 제10차 WTO 각료회의(10th Ministerial Conference)가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 이번 각료회의 에서는 DDA, TFA 등과 같이 지난 20년 동안 WTO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사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나이로비 각료 선언(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될 예정.

2015.12.08

2. WCO

• < 10월 ~ 11월 동향 >

> I. WTO 무역원활화협정 관련 제4차 작업반 회의 개최 (10.12~10.13, 브뤼셀)

□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제4차 WCO 작업반 (Working Group) 회의가 개최, WTO 무역원활화협정 수락현황 등 최근의 동향과 사무국의 협정 이행 가이드스 발표 등 협정이행과 관련한 논의.

> II. 제209/210차 상임기술위원회(PTC) 회의 개최 (10.14~10.16, 브뤼셀)

□ 제209/210차 상임기술위원회(Permanent Technical Committee)는 「세관의 미래(The Future of Customs)」를 주제로 가상작업반 활동, 성과 측정, 세관-민간 파트너십, 관세사 제도, 디지털 세관 등과 관련된 WCO 활동 내역 보고와 회원국의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 공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III. 제67차 펠로우십(Fellowship) 연수 프로그램 실시 (10.5~10.16, 서울)

□ 기획재정부는 WCO 개발도상국 능력배양사업의 일환으로, WCO 본부교육을 마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7개 개발도상국 중견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실무에 대한 강의를 비롯하여, 세관 및 국내 주요기업 견학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2015.12.08

> **IV. 제41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TCCV) 회의 개최 (10.19~10.23, 브뤼셀)**

□ 제41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40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결과보고서 채택, 회기 중간의 능력배양 활동 보고가 이루어지는 한편,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사례연구, 광고와 프로모션 비용의 취급 등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 기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V. 제98차 재정위원회 회의 개최 (10.26, 브뤼셀)**

□ WCO 본부에서 개최된 제98차 재정위원회를 통하여, WCO의 향후 3개년(2016년~2019년) 전략계획 예산 및 유보금 사용, WCO의 출판정책, 2015/2016 회계연도 분담금 납부상황 등에 대한 점검 및 논의가 이루어짐.

> **VI. 2016년을 「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의 해」로 선언 (11.12, 브뤼셀)**

□ WCO 사무총장은 2016년을 「Digital Customs: Progressive Engagement」라는 슬로건 아래에 세관절차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둔 계획이라고 발표, 2016년 한 해 동안 회원국들 간에 세관 업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기술 사용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5.12.08

> **VII. 제49차 품목분류검토소위원회 개최 (11.16~11.20, 브뤼셀)**

- 벨기에 브뤼셀 소재 WCO 본부에서 제49차 품목분류검토소위원회(Harmonized System Review Sub-Committee)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발광다이오드(LED, light-emitting diode), 웨이스트(waste), 평판디스플레이 모듈(Flat Panel Display Modules), 몬트리올 협정에 따른 오존층 파괴 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화학 무기협정에 다른 물질, 스마트 와치(smart watch)」 등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와, HS2017 주해(explanatory note) 수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12월 전망 >

> **I. 제74차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12.7~12.9, 도미니카 폰타 카나)**

- 제74차 WCO 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I2C(Information and Intelligence Centre)」 발족을 포함한 전략계획 이행 관련 보고를 비롯하여, 보안을 위한 세관의 역할(Customs contribution to Security), 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 세관-세무서 협력(Customs-Tax cooperation), 무역원활화, 세관 간 정보교환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2015.12.08

3. ESCAP 등 기타

- < 10월 ~ 11월 동향 >

- > I.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당국자 회의 개최(10.7~10.9, 인도 고아)

- 제11차 ASEM(Asia-Europe Meeting) 관세당국자 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이행, 통합국경관리, 제품안전, 지적재산권보호, 국경폐기물 선적관리, 민관협력, 관세무역의 날, AEO, 위험물품 공동탐지」라는 9대 관세 액션플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원국들의 현행 관세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이행과 통합 국경관리와 관련한 회원국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

- > II. 제4차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관세위원회 개최 (10.12, 인도)

- 제4차 한-인도 CEPA 관세위원회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통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비롯하여, 원산지 규정 및 증명절차 개선 등 한·인도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양국 관세위원회의 논의가 이루어짐.

2015.12.08

> **Ⅲ. ESCAP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 제2차 실무회의 개최(11.5~11.6, 방콕)**

- 태국 방콕 UNCC에서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는데, 이 번 회의는 법률그룹(Legal Working Group)과 기술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으로 나뉘어서,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가 수, 유보 조항 등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협정문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